이웃종교 함께 봉축 찬탄하니 '기쁨 두 배'

범어사 금강암, 5월 3일 부처님오신날 절대평등 발원

부처님 평등사상 실천하고자
이웃종교 구분 없이 함께 봉축
장학생 60명에 5000만원 전달
기독교종합대 학생 포함돼 눈길

부처님오신날인 5월 3일 전국적인 봉축 행사가 열린 가운데 부산 범어사 암자인 금강암에서는 특별한 무차공양이 열렸다.

금강암(회주 정만)은 제8회 금강암장학회 장학금 수여식을 열고 대학생 10명(각 200만원), 고등학생 10명(각 100만원), 중학생 40명(각 50만원) 총 60명에게 총 50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장학금은 금강암 신도들이 보시한 봉축 헌등비 2,000만원과 각 신도회 및 천호식품 후원으로 마련됐다. 그동안 금강암이 전달한 장학기금은 1회 2,200만원과 2회 3,000만원을 제외하고 매년 5000만원을 전달해 총 3억5,2000만원이다.

금강암은 장학생 선발 기준으로 특별한 원칙을 세웠다. 바로 '무차(無遮)'다.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구분 없이 오직 인연 따라 차별 없이 장학생을 선정했다.

사실을 증명이라도 하듯 금정중 장학생에게 어떻게 장학금을 받았냐고 물었더니 웃으며 대답한다. "제가 학교에 일찍 가요."

특히 이번 장학생 중에서는 이웃종교 종립 대학교 학생도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고신대학교 학생으로, 고신대는 목사의 추천을 받아야만 입학이 가능한 기독교종합대학교다. 이처럼 종교 구분 없이 장학생을 선발한 이유에 대해 금강암 회주 정만 스님은 부처님의 평등사상 때문이라고 말한다.

"평소 신도들에게 강조하며 가르치고 당부하는 것이 '절대 평등'입니다. 모두가 부처이며 주인공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평등의 가르침을 알려면 차별 없이 모두에게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합니다."

또 정만 스님은 이러한 장학금 전달이 은사 벽파 스님의 유업을 잇는 것이란 말도 덧붙였다.

"제 은사 스님이신 벽파 스님은 생전에 금강암에 계셨을 때 사회복지법인 보현도량과 장학재단을 설립하셨을 정도로 복지의 선구자셨습니다. 제자인 저희들이 그 유업을 이어가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아울러 종교라는 것은 중재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재력이 있는 신도들이 시주를 하면 그 정재를 어려운 이들에게 잘 전달되도록 매개체 역할을 충실히 해야죠. 앞으로도 저의 수행이라 여기고 실천할 계획입니다."


제8회 금강암장학회 장학금 수여식이 열린 5월 3일 금강암에는 이웃종교인들이 방문해 부처님오신날을 함께 축하했다.

정만 스님은 금강암에서는 부처님오신날은 성범(聖凡), 도속(道俗), 귀천(貴賤), 상하(上下) 일체 구분 없이 모두가 주인공인 날이라고 했다.

이 말처럼 부처님오신날 정만 스님의 방에는 수녀와 신부가 방문했다. 15년 된 인연이라는 설명과 어울리는 모습으로 편안한 차담이 오고갔다. 수녀들은 노래를 부르며 부처님오신날을 축하했다. 이 뿐 아니라 이날 금강암 마당에서는 등산복을 입고 지나가다 들린 사람, 외국인 노동자, 부산대에서 찾아온 사물놀이 공연팀까지 신도가 아닌 사람들도 편안하게 도량에 앉아 모처럼 휴식을 취했다.

스님은 "누구나 부처님께 올 수 있어야 한다"며 "그것이 곧 부처님 도량이자 차별 없는 세상의 시작"이라고 웃어보였다. 하성미 기자

원효보살 제1331주기 열반대재

대한불교원효종, 4월 25일 서라벌대에서

대한불교원효종(총무원장 우석)은 원효보살 제1331주기 열반대재를 경주 서라벌대학교 원석체육관에서 4월 25일 봉행했다.〈사진〉

총무원장 우석 스님은 "원효보살의 불교사상은 화쟁과 일심, 무애의 가르침으로 대표될 수 있다"며 "미혹에 허덕이는 지금의 시대에 무명을 밝혀주시어 모든 이의 마음을 부처님과 원효보살의 법력으로 자비와 광명이 충만해 미혹과 죄악의 어둠을 걷어내고 불국정토를 이루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종정 정광 스님은 "서쪽 골짜기 사미승은 머리 조아려 동악에 계신 큰스님께 예를 올리옵고, 작은 티끌 불어내 영축산에 보태오며 한 방울 물 날리어 큰 못에 던지리오"라고 법문했다.



한편 이날 추모대재에 이어 종단에 공이 많은 스님과 신도들에게 공로상 등을 수여하는 종도대회도 진행됐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무차만발공양으로 봉축 기쁨 나눠요"

한일불교문화교류협 여성부, 4월 30일 부산시민공원서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여성부(회장 백명숙)는 4월 30일 부산시민공원에서 시민 3000명을 대상으로 제12차 무차만발공양을 진행했다.〈사진〉 다채로운 나물이 버무려진 비빔밥과 물김치, 음료수 등 공양을 준비한 여성부 회원들은 새벽부터 서둘렀지만 피곤한 기색 없이 밝은 웃음이 가득했다.

회원들 뿐 아니라 시민들을 맞이하는 일에 사무총장 향운 스님을 비롯해 상임 이사 스님들도 팔을 걷고 나섰다. 가족들과 나들이 나온 시민들은 설치된 장엄등과 비빔밥 공양 덕분에 마치 산중 사찰을 찾은 듯 즐겁다는 반응을 보였다.



사무총장 향운 스님은 "회장님과 여성부 회원들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들이다. 수고와 노력 감사드린다. 그 공덕이 무한하다"며 "종교에는 정치도 국가도 서로 차별이 없음을 보여 주는 것이 본회의 목적이다. 무차만발공양도 그 정신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하성미 기자

부산남구불교聯 군장병 위문 법회

부산남구불교연합회(회장 지원)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4월 30일 해군작전사령부 군법당을 방문하고 위문법회를 봉행했다.〈사진〉

남구불교연합회는 이 자리에서 지난해 일일찻집으로 모은 성금 300만원과 간식을 전달했다.

회장 지원 스님은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이 시간 갈등이 해소되고 행복한 시대를 열어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발원해 주시길 바란다"며 "아울러 가장 아름다운 청춘의 시간에 이곳에서 복무하는 동안 자신을 위해서도 시간을 헛되이 낭비 하지 않도록 뜻을 세우고 노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성미 기자



김해 기도도량 법선암 문 열다

5월 3일 개원법회 봉행 없이 상단불공 진행

경남 김해에 기도 정진 도량 법선암이 문을 열었다.

법선암(주지 법선)은 5월 3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경남 김해 한림면 신천리에 새롭게 문을 열었다. 주지 법선 스님은 개원법회를 별도로 봉행하지 않고 평소 기도하던 대로 상단불공을 시작해 3시간 동안 신도들과 함께 기도했다. 이 자리에는 주지 법선 스님과 불자 20여명 정도 참석했다.

주지 법선 스님은 특별한 법문이 현재 신도들에게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이미 기도 정진 수행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로 이미 자신이 가야할 해답을 알고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법선 스님은 "이곳은 기도 도량이다. 처음 불자들을 만나면 지장기도 21일, 광명진언 1080독 21일, 지장경 300독, 금강경 100독, 보현행원품 100독, 선가귀감 50독, 법화경 30독을 차례로 권한다"며 "몇 개월 간 독송하고 기도를 반복하도록 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이곳에 계신 분들은 앞서 말한 기도와 독송은 이미 마치고 반복한 분들이다. 많은 사람이 찾는 도량 보단 내실을 다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함께 기도할 도반들이 찾는 곳으로 성장하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기도도량 법선암은 5월 3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경남 김해 한림면 신천리에 새롭게 문을 열었다.

법선암은 호랑이가 엎드린 형상을 한 임호산 자락 한림면에 위치한다. 스님의 설명에 따르면 법선암은 김해를 지키는 문지기 역할을 하는 지역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자리한다.

법선 스님은 합천 해인사와 상선암에서 기도 수행했으며 부산 범일동에서 포교원을 열고 활동하다 1년 4개월 전 김해로 이전해 불사를 시작했다. 현재 불사는 1층까지 마무리 됐으며 2층 요사채 3층 법당 불사가 진행 중이다.

하성미 기자

금정중학교 '여러분이 곧 부처입니다'

5월 2일 부처님오신날 맞이 금정봉축제 봉행

종립학교 금정중학교(교장 정진완)는 5월 2일 금정봉축제를 학교 강당에서 봉행하고 부처님오신날 의미를 되새겼다.〈사진〉

금정봉축제는 먼저 육법공양으로 시작됐다. 육법공양에는 이날 법사로 나선 범어사 부주지 범산 스님, 정진완 교장과 교사 및 행정실 직원, 반야불자회 어머니와 학생이 나와 부처님께 향, 차, 꽃 등을 차례로 육법공양 올렸다. 이어 이석언 교법사가 발원문을 낭독하며 부처님의 가피로 학생들이 지혜롭게 성장하기를 발원했다. 축하공연으로는 태평무 및 색소폰 연주 등이 마련됐으며 마지막으로 관욕의식이 진행됐다.



범산 스님은 "'천상천하유아독존'이란 말씀을 잘 알아야 한다"며 "부처님께서 깨치고 나니 모두가 부처라는 사실을 아셨다. 바로 여러분이 부처"라며 "이런 사실을 꼭 알아 존귀한 자신임을 알고 행복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하성미 기자

사찰신도관리프로그램
"이용 사찰의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매우 만족 - 99%"

◆전국 어디서에나 실시간으로 사용가능
◆저렴한 비용과 사용의 편의성
◆사찰관리업무 간편화
◆연등, 인등, 축원문 등의 간편 출력 가능
◆문자서비스, 우편라벨 등의 부가서비스
동종업계 최저 가격
최초 가입시 1개월 무료 사용
➔월사용료 : 기본 19,800원
설치비 없음, 세팅비 전액무료

연등표 출력 인등표 출력 위패 출력

문자발송 기부금 영수증
부가서비스
축원문출력, 삼재관리, 회계관리, 우편라벨 출력, 일정관리, 신도영가 기일 자동 알림, 등록된 모든 자료 파일의 다운로드 가능, 물품관리 등
NAVER 지엠소프트
대표전화 070-7633-2525 / 010-8588-2525
상담문의 : 평일 09:30 ~ 17:3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무
홈페이지 http://www.gmst.co.kr

토굴 분양 안내
따뜻한 남쪽나라 바다와 산이 어우러진 남해에 삼재가 침범하지 못하는 길지에 지어진 토굴에 입주하실 복 있는 인연자를 모십니다.
토굴특징
1 자연재난(지진, 태풍, 해일)과 전쟁 사변 등으로 전기, 수도, 가스등이 단절되더라도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구비 되어 있는 아구이와 온돌 구조 이며 자연수 등이 갖춰진 건물입니다.
2 유명 풍수가들이 극찬한 지세와 지기를 머금은 명당이며 말기암 환자나 난치병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자연 치유될 수 있는 환경과 주변 뒷산에 산약초가 자생하는 지역입니다.
3 또 심우도(尋牛圖) 길이 조성되어서 걷기 명상 할 수 있는 등산로가 있습니다.

분양내용 (선착순 분양)
■ 1개동 건물면적 30㎡. 대지지분 156㎡
■ 1개동 분양가 : 일억원 ■ 총 7개동
■ 아궁이 10㎡ (9.1평)
■ 주소지 : 경남 남해군 남면 홍현리 581-2
■ 별채 : 2층건물 면적 197.27㎡ / 대지면적 1,042㎡
■ 양도가액 : 5억원
연락처 : 010-8913-0062

참기 힘든 치아통증, 거친 피부
피부·치아 건강제
건강한 치아, 아름다운 피부를 원하십니까?
참기힘든 치아 통증, 치아건강 백세인생
거친피부, 노화촉진, 피부건강, 청춘인생
약사여래불 보살님의 기도, 가피, 지혜원력으로 건강하여지니 회향공덕하는 마음으로 불자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국내산 자연식용재료로 준비하였습니다
스님, 불자님, 충치, 풍치, 시린이 치주염, 아토피, 피부알레르기, 기미, 손발톱 무좀, 각질 등 치아피부가 건강치 못한 분들 연락주시면 3개월 사용분을 보시합니다.

문의 및 보시처 안산 법흥사 개운 합장
010-6332-6070

돼지감자, 연근 국내산 100%
자연 그대로
스님들과 불자님들의 건강을 위해 사찰에서 직접 재배한 돼지감자와 연근을 드시기 좋도록 자연그대로 건조시켜 분말로 만들어 담았습니다.

돼지감자 분말
한박스 44봉 7만원
◆효능 : 당뇨, 변비, 췌장 기능 강화, 체지방 분해, 다이어트 효과, 해열, 지혈에 탁월한 효과

연근 분말
한박스 44봉 9만원
◆효능 : 고혈압, 빈혈 예방, 피부미용, 위벽보호, 변비예방, 기억력 개선, 치매 예방, 니코틴 제거에 탁월한 효과
음용방법 보통 물 한 컵에 한봉지를 넣고 잘 저어서 아침 저녁으로 드시면 됩니다. (우유, 요구르트 등에 타서 드셔도 좋습니다)
금강식품(금강정사) 대리점모집 中
경남 양산시 대동 2길 24 (어곡동)
기업은행 055-375-1398 권영로
문의 055-375-1398.010-2563-1398
지 웅 합장